

지속가능한 삶을 위한 요르단 가정의 불안정한 물 공급 이해

:아시아연구소 대학원생 현지조사지원 사업을 통해

서울대학교 지리학과 석사과정 김예원

아시아연구소의 '대학원생 아시아 현지조사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지난 2024년 6월 24일부터 7월 29일까지 요르단 암만과 이르비드에서 현지조사를 진행하였다.

'요르단' 하면 우리는 어떤 것을 떠올릴까? 세계 7대 불가사의의 페트라를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바다에서 책을 읽으며 떠 있는 모습을 떠올리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사실 나는 지리학을 전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르단에 대해선 깊이 알지 못했다. 그러나 대학원에 진학한 후, 학교 프로그램을 통해 우연한 기회로 2023년 요르단에 방문하게 되었고, 그 이후에 요르단은 나에게 빼놓을 수 없는 나라가 되었다.

처음 요르단을 방문했을 때, 집마다 옥상에 물탱크가 있던 모습이 가장 인상 깊었다. 옥상에 있는 물탱크는 일주일에 한 번씩 공급되는 물을 저장하기 위해 사용한다. 일주일에 한 번씩 물이 공급되다니! 우리에게선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기도 하다. '왜 요르단은 일주일에 한 번 공급받고 저장하며 생활하게 되었을까? 그럼, 사람들의 삶은 어떨까?'라는 궁금증은 나의 연구의 시발점이 되었다.



[그림 1] 요르단 건물 옥상에 있는 물탱크

물은 인간의 삶에 기본적인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자원으로 오랫동안 인권의 하나로 인식되어 왔고 국가의 안정과 번영을 위한 중요한 요소이다. 그렇기 때문에 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중 6번 목표는 '깨끗한 물과 위생'이다. 세계자원연구소(2023)에 따르면 요르단은 세계에서 물이 가장 부족한 국가 중의 한 곳이며, 이미 오래전부터 물 안보와 관련해 대처해 온 역사가 있었다. 1인당 연간 $500m^3$ 는 '절대적 물 부족' 기준으로 제시되지만, 요르단은 2020년 기준으로 이보다 훨씬 적은 1인당 연간 $100m^3$ 에 불과했다. 설상가상으로 요르단은 최근 급격한 도시화, 기후변화 그리고 주변국으로부터 난민들의 유입 등 여러 가지 요인들이 결합하여 한정된 수자원에 위협을 가하고 있다. 이는 요르단의 사회적인 문제에 그치지 않고 경제 발전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문제를 바탕으로 요르단의 물 공급 문제와 관련해 사람들의 삶이 시작되는 곳이자 사회문제를 직접적으로 체감하는 공간인 '가정'에 주목했다. 더 나아가 현지 상황을 고려한 지속 가능한 삶을 위한 물 전략을 제안하고자 현지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대상은 물 문제를 직접 체감하고 있는 기혼 여성 32명과 요르단에서 활동 중인 한국 NGO단체 소속 한국인 2명, 요르단 NGO단체 소속 현지인 2명, KOICA 요르단 사무소 관계자로 이루어졌다. 이들을 대상으로 반구조화된 인터뷰를 진행하였으며 현지인 가정에서 3주간 머물며 참여관찰을 통해 실질적인 생활 환경과 물 사용에 대한 심층적 이해를 도모하였다. 현지조사를 진행하기 전에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IRB)의 승인을 받았으며, 현지조사를 진행할 때는 요르단 대학교 한국어학과 학생들이 통역을 지원해 줬다.

연구가 수월하게 진행되는 날도 많았지만, 연구에 가장 큰 어려움을 직면한 것은 인터뷰 대상자와 인터뷰 약속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었다. 처음 인터뷰 대상자와 약속을 잡을 때, 약속 당일까지 장소와 시간을 알려주지 않아 당황한 적이 있었다. 이런 일이 반복되었을 때, '거절하는 의미인데 내가 알아차리지 못한 것일까?'라는 걱정도 했지만, 현지 친구들에게 물어보니 요르단의 문화적 특성이라고 알려줬다.

이뿐만 아니라 본 연구는 눈덩이 표집법을 활용해 기존 참가자가 새로운 참가자를 소개해줬는데 막상 약속 당일 현장에서 인터뷰를 취소하는 경우도 빈번했다. 처음에는 제한된 시간 안에 많은 인터뷰를 진행하고자 하는 압박감에 초조하기도 했었다. 하지만 몇 번의 거절을 경험한 후 이런 상황을 받아들이고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기로 마음을 다잡았다.

현지조사를 통해 도출된 결과를 간략하게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요르단 사람들은 물이라는 제한된 자원 사용에 적응한 내재화된 패턴을 찾아볼 수 있었다. 인터뷰에 따르면 주민들은 물을 절약하기 위해 빨래나 청소 등 가사 활동을 물이 공급되는 날에 하거나

일주일에 2~3회로 제한하고 경우에 따라 추가적인 비용을 들여 세탁소에 맡긴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물이 공급되는 전날을 가장 힘들어하며 가정에서는 이에 맞춰 모든 활동을 중단하였다. 또한 물이 공급되는 다음날까지 기다리거나 물이 더 필요할 경우는 개인 수급차에 추가적인 비용을 지불한다고 응답했다.

물이 공급되는 날에도 공급 시작되는 시간이 일정하지 않아 물이 언제 나오는지 이웃 주민, 가족들과 매번 확인하며 물이 나오기를 계속 기다려야 한다. 물이 공급되기 시작하면 물이 제대로 탱크에 채워지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탱크를 주기적으로 체크하러 옥상에 올라가고 일주일 동안 미뤄뒀던 집안일을 한다.



[그림 2] 좌: 요르단은 철제나 플라스틱 물통에 한 주 동안 사용할 물을 저장한다. 우: 물이 부족하여 식물에 물을 주지 못해 흙이 갈라지고 꽃이 시들었다.

정부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공급해 주는 시스템은 표면적으로 안정적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가구별로 공급받는 시간이 적게는 2시간에서 길게는 48시간까지 크게 달라진다. 이는 주거지의 지리적 위치에 따라 결정되며 이런 불안정한 물 공급은 가계 재정에도 추가적인 영향을 미쳐 사람들에게 부담된다. 즉, 불안정한 물 공급이라는 사회적 문제가 결국에는 개인의 대처와 능력의 문제로 귀결되는 현상을 발견하였다. 본 연구는 사회지리학 분야에서 학문적 가치를 지니며 현지 상황을 반영한 지속 가능한 실용적 방

안을 제안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이번 현지조사는 문헌과 파일럿 연구로는 파악할 수 없었던 사회적 맥락을 직접 경험하고 분석할 수 있다는 기회를 제공하였고 이를 통해 연구의 깊이를 더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또한 인터뷰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나도 모르게 요르단 사람들의 삶을 단편적으로 판단하고 있던 편견을 깰 수 있었다. 이는 그들의 삶을 더 가까이에서 이해할 수 있는 연구자로 한 뼘 더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요르단은 지리적인 이유로 물 자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할 뿐만 아니라 불안정한 이웃 국가들로 인해 물 안보에 대한 추가적인 위협을 받고 있다. 현대 사회의 급격한 발전으로 이제는 국가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다. 그렇다면 '요르단의 물 안보는 비단 요르단의 자체만의 문제인가?'라는 질문을 던져볼 수 있다. 나의 연구와는 별개로 세계시민이라고 불리는 우리가 어떤 가치를 지향하고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